

‘방만경영’ 법안 심사 잠정 연기

(금갑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열어… 기재위 “심사 법안 많고 논의 순서 안 돼”

‘방만경영’ 통제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의 주권 예산안 감독분담금을 준(準)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지정하려는 법안 심사가 잠정 연기됐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김경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담금관리기법법’ 개정안을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전에 상정되지 않았다. 기재위 관계자는 “심사 법안이 워낙 많은데 (부담금관리기법법 개정안) 논의 순서가 안 돼 오늘 못했다”며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새로운 법안인 만큼 연내 첫 심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담금관리기법법 개정안은 금감원

의 감독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전환하지는 것이다. 부담금은 금감원이 감독·검사 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돈으로 올해 금감원 예산(3666억원)의 약 80%를 차지한다.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전환 논의는 지난 9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촉발됐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상위 직급과 국외 사무소 등을 과도하게 운영, 이는 감독분담금 징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부담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날 19일 국정감사에서 부담금

전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전환되면 기재부가 예산을 통제하게 된다. 현재는 금융위가 예산을 정하면 금감원이 각 금융사로부터 부담금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감독분담금은 금융사 검사에 대한 ‘대가성(수수료)’ 성격을 갖고 있어 ‘비대가성’이 핵심인 부담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에 대해 기재부까지 금감원을 통제할 경우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날 개정안이 안전에 상정되지 않은 배경으로 금융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개정안 심사 보류 요청을 들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정무위는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을 기재위에 제출한 바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부담금의 정의에 감독분담금이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보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전환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추후 개정안이 안전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

전주시, 무선통신자동차 창작 체험 캠프 경진대회

전주시가 3D 프린팅과 사물인터넷(IoT)분야 기술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미래인재를 육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서문산성, 이하 진흥원)은 22일 진흥원에서 지역 내 초·중·고·대학생과 일반인 등 총 88명, 35팀이 참가한 가운데 ‘2017년 IoT Connected Car(무선통신자동차) 창작 체험 캠프 레이싱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진흥원이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이동환),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이형규), 전주비전대학교 창업교육센터(센터장 정영득)와 공동으로 ICT 스마트 디바이스 및 3D프린팅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 레이싱 경진대회는 빠른 시간 안에 트랙을 완주하는 스피드 부문과 트랙 안에서 서바이벌 밀어내기 경진을 펼치는 파워

부문, 장애물을 피해 경진하는 장애물 부문, 현장 투표를 통해 우승자를 가리는 디자인 부문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진흥원은 향후 지역 내 대학 및 초·중·고교와의 아이디어 캠프, IoT 체험학습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역 내 우수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창작문화를 확산시키고, 청년 창업가 양성을 위해 전국 아이디어 공모전과 제품화 지원, 기술 및 사업화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지역 내 초등학교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ICT 분야를 체험하고, 창업에 까지 이를 수 있도록 더 많은 창작교육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창의 인재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전주 에코시티 기업형 임대아파트 조성

24일 견본주택 개관 임차인 모집

전주에 기업형 임대 아파트가 들어선다. 22일 태영건설에 따르면 전주 에코시티에 기업형 임대 아파트인 ‘전주 에코시티 데시앙 네스트’가 들어선다. 기업형 임대 아파트는 최소 임대 보장기간이 8년이다. 임대료 상승률이 연간 5% 이내로 제한 때 이 사적경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취직세와 재산세 등 세제부담이 없다. 여기에 소득 수준과 주택 소유, 청약통장 유무, 지역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형 임대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 때때 또는 전세가격보다 저렴하다. 이에 보증금, 월세만 내면 새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어 웬만한 신규 아파트 못지않게 인기가 높다. 또 최근 들어 집은 사는(buy) 게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임대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택 소유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에코시티에 기업형 임대아파트로 들어서는 데시앙 네스트는 총 826가구(전용면적 59~84㎡)이다. 타입 별 가구 수를 보면 ▲59㎡A 108가구 ▲59㎡B 81가구 ▲59㎡C



29가구 ▲84㎡A 463가구 ▲84㎡B 145가구 등이다. 이 단지는 평면설계와 단지조경 등 일반 분양 아파트와 유사한 수준의 설계가 적용되며, 에너지 절감 시스템과 입주민의 편의를 높여 줄 첨단시스템이 적용된다. 실제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적용하고 일괄소동과 가스차단, 엘리베이터 호출이 가능한 시스템, 바닥열을 이용해 실내 환경 유지가 가능한 세대환기 설비도 적용된다. 그리고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휘트니스, 실내골프장 등이 들어서며 단지 내 마을 산책로를 조성하고 인근 공원과 연계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 에코시티 데시앙 네스트’ 견본주택은 전주 송천동에 마련됐으며 오는 24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임차인 모집에 들어간다. 임차인 모집 일정은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이다. /뉴스

롯데백 전주점, 저소득 세대에 쌀·생필품 기탁

전주시 완산구 서산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박중구)은 22일 추운 겨울 어려운 저소득 세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쌀 10kg 130포와 생필품 50점을 완산구구청장 백순기에 기탁해 따뜻한 겨울나기에 힘을 보탰다. 이번 기부는 박중구 롯데백화점 전주점장 및 백화점 직원 등이 자발적으로 소중한 마음을 모아 기부금을 마련하고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물품을 전달하였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해마다 지역민과의 친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백화점 직원 자체 봉사단인 ‘사뫼데봉사단’은 지역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

하며 봉사활동을 실천 중이다. 박중구 롯데백화점 전주점장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마음까지 얼어붙지 않도록 직원들의 마음을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싶었다. 앞으로도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다양한 이웃돕기 사업을 꾸준히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순기 완산구청장은 “지역과 더불어 함께 하고자하는 롯데백화점의 마음을 변함없이 실천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며 “따뜻한 마음은 관내 저소득세대에 잘 전달될 것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신보, 매출채권보험 모바일 앱 서비스 실시

신보보증기금은 22일 매출채권보험에 모바일 앱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앱 서비스는 보험계약자가 스마트 폰 앱을 활용해 보험신청, 실시간 매출채권관리, 결제일 자동알람 등 다양한 원스톱 업무처리가 가능한 서비스다. 신보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전자방식 매출채권보험(전자보험)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며 전자보험 가입 시 최대 2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

업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금에 되는 손실금액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공적보장제도다. 이중 전자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전자적으로 거래처를 관리하므로 결제지연 사실을 조기에 인지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그간 전자보험 계약자는 회사 내부의 컴퓨터를 이용해 매출채권을 등록·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뉴스

이통 3사, 5G 대비 플랫폼 ‘드론 시장’ 선점

업계 “드론, 5G 상용화 앞두고 파급력 더 커질 것”

이동통신 업계가 2019년 상용화가 예정된 5G를 대비할 새로운 플랫폼으로 드론을 점찍고 관련 시장 선점에 나섰다. 이동통신사와 드론, 언뜻 생각하면 잘 연결이 안되는 조합이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비행체인 드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동기지국같은 ‘단말’ 역할을 하면서 물류 및 측량, 보안 등을 넘어 재난 감시에 이르기까지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와 솔루션 역량을 지닌 이통사들이 무섭게 크는 드론 산업을 5G시대의 핵심 서비스로 키우겠다는 야심을 드러내는 배경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최근 신규서비스 출시·공공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드론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준비를 마쳤다. 업계는 5G가 가진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특성이 드론과 결합하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4G보다 빠른 속도로 고품질의 영상 전송이 가능해져 드론의 활용 폭이 넓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방산업 전문 컨설팅 기업인 딜그룹 등에 따르면 세계 드론 시장규모는 2014년 약 7조5000억원에서 2023년까지 13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각 산업 분야에

서 드론 활용에 따라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장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정부도 4차산업혁명 육성산업 중 하나로 드론을 꼽았다. 이에 산업 발전을 촉진 관련규제도 점점 해소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드론 운항은 조종자나 감시자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로 비행이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드론 특별 승인제’가 이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별도의 안전기준이 충족되면 야간 및 비가시권 비행이 가능해졌다. 이통3사도 4차산업혁명의 핵심 전략으로 5G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드론 사업에 투자를 지속해왔다. 특히 공공 안전과 산업 분야의 관계시스템을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고 실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가 드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에 확대 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라며 “드론을 단순한 무인비행체가 아닌 단말이라 생각하면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재난시 이동식 기지국의 역할을 했던 드론이 최근 사업 영역을 크게 확장하고 있다”며 “5G 상용화를 앞두고 파급력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통사의 관심은 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

www.j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미나리



장미



호박



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오태식
상임이사 (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성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윤,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전주농협농민회
전주농협 Good 농산물